

김미련
KIM MIRYEON

2006-2022

www.kimiry.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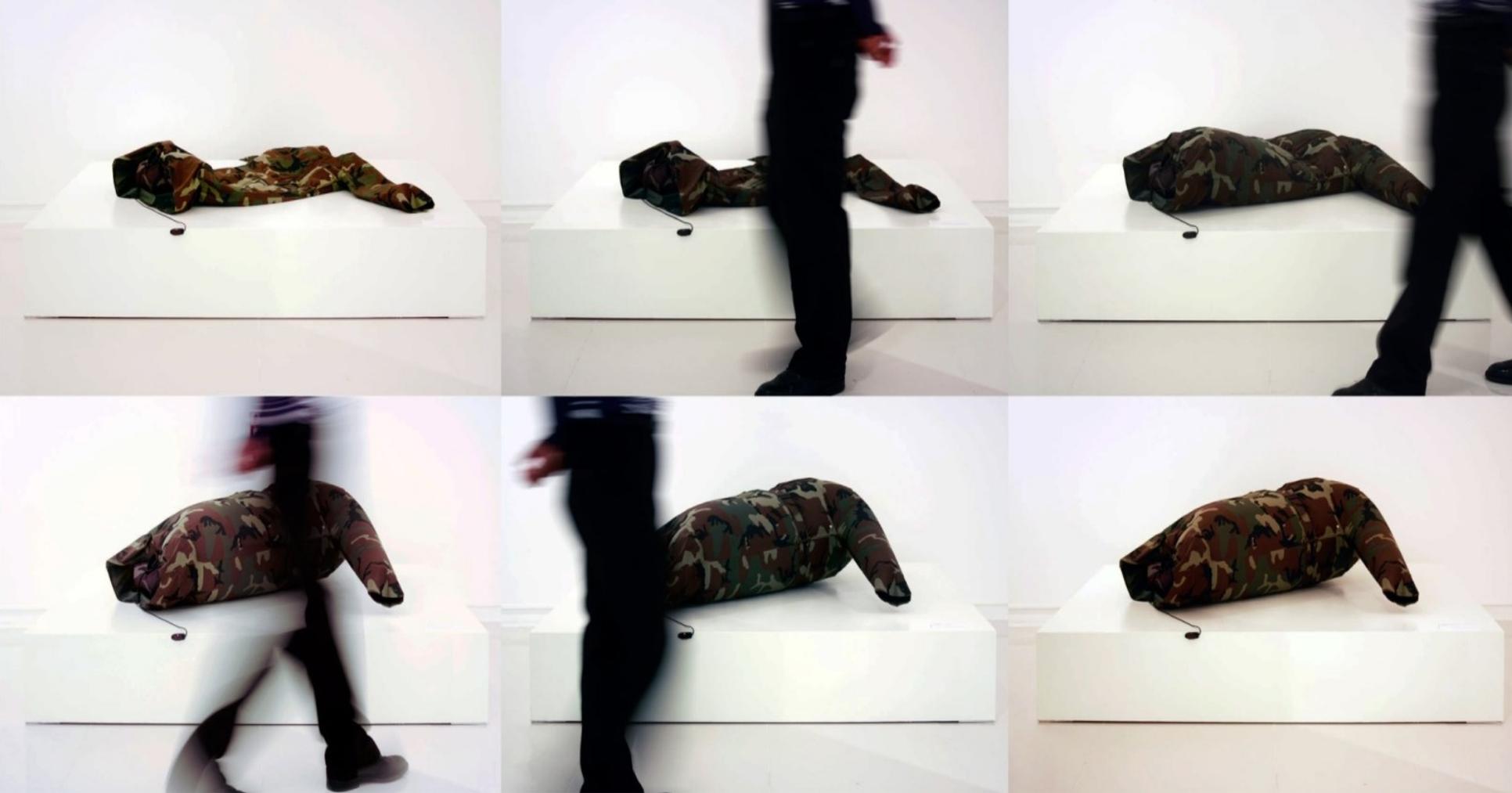
Air Coat

‘월남전 파병에 참전했던 한 한국병사의 비옷과 가방은 한국전쟁60주년이 되는 오늘, 개인적인 일상의 기억과 역사의 기억 사이에서 한 조각으로 되살아난다.

이 개인의 유품들은 육군병사의 비옷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 관람자의 행위와 만나, 기억의 공기를 들이키며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며 서기도 하고 스러지기도 한다.’



Air Coat I / interactive Installation / 60x70 x120 cm / 2010



Air Coat II / interactive Installation / 30 x130 x120 cm / 2010



Air Coat V / Interactive Installation / variable Size / 2010



Air Coat V / detail



<https://www.youtube.com/watch?v=cfslh5VBgII>



Monumental Air Coat in Glass box IV / interactive Installation / 2010





커다란 기념비적 진열장(monumental Showcase)을 떠올리게 하는 유리상자 안에 설치되는 8개의 남성용 코트(얼룩무늬와 국방색, 군청색으로 된 XXL사이즈)는 그 무늬와 색상, 옷감의 광택으로 인해 지나간 기억 속에 있는 집단적인 권위, 또는 억압, 폭력 등으로 치환(置換)될 수 있다. 과거의 기억 속 어떠한 것들이 호출되듯이 관람자의 미세한 반응, 동작등에 의해 정지된 오브제들은 팽팽하게 부풀었다가 다시 쪼그라든다.

오브제와 관람자의 행위가 상호작용(interaction)하여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들은 과거 속 기념비적 진열장을 현재에 있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시간 이동시킨다.

Monumental Air Coat in Glass box IV / detail



<https://www.youtube.com/watch?v=hQG51IC03pk>



small Aircoat

73x40x15cm

interaktive Installatio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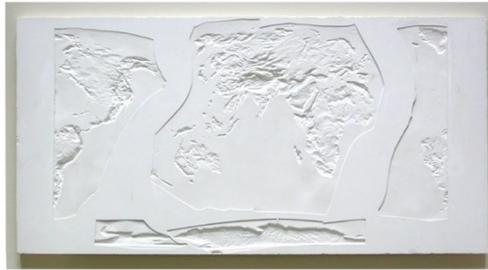
Remapping

유럽과 미국의 세계지도를 비교해 보면, 유럽의 세계지도에서의 동구와 서구의 구별은 미국의 세계지도에서는 반대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주 다른 세계지도(인도네시아가 세계지도의 중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도는 그 나라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낯설음은 나에게 묘한 충격을 주었고, 나는 나의 습관적인 시 지각습관들과 객관적인 이미지-정보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 보게 되었다.

평면(2차원)의 세계지도를 입체(3차원)로 옮기는 작업과정(제 각각 다른 지구의 대륙이 부분적으로 세겨진 3개의 지구형(공)들은 회적모터에 의해 돌아간다.)에서 지구가 어떤 한 곳(장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각 대륙에 연결된 고정장면들 없이 끝없는 운동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이 오브제는 설치공간의 크기, 볼륨, 빛의 출처와 각도,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에 따라 전시장소와 유연하게 조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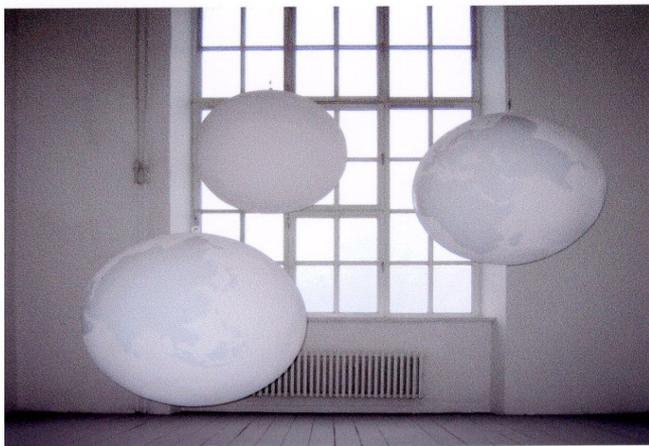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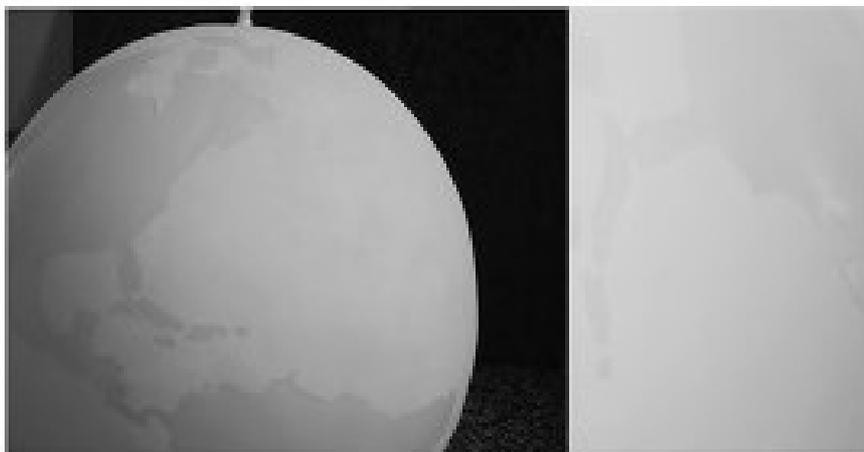
한 장의 지도는 어떠한 것의 모사 일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고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Remapping I / Plaster / 92x47x5cm / 2005



Remapping III / Space Installtion
/ 구 지름101cm /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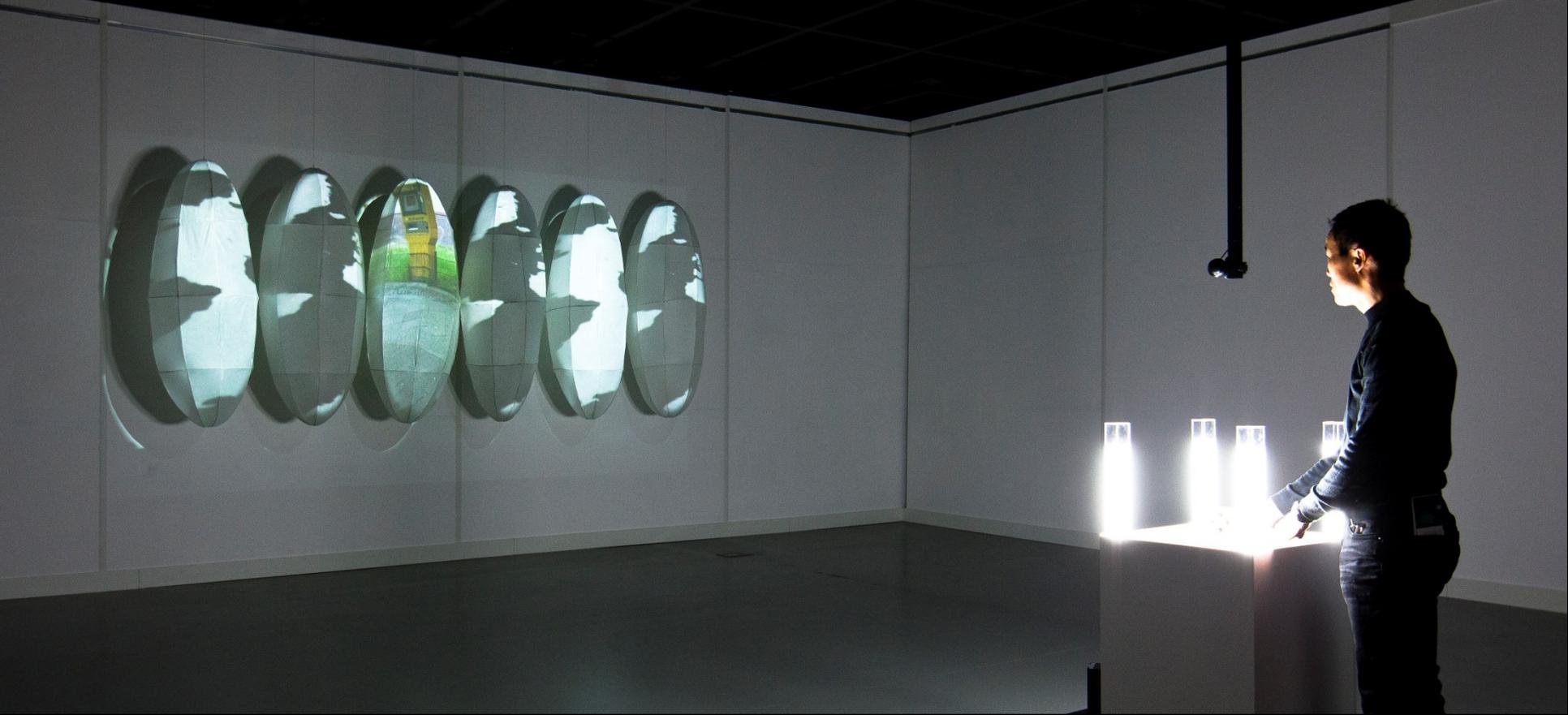
<http://www.artdoku.de/kim2/sites/start00.html>



Remapping III / details /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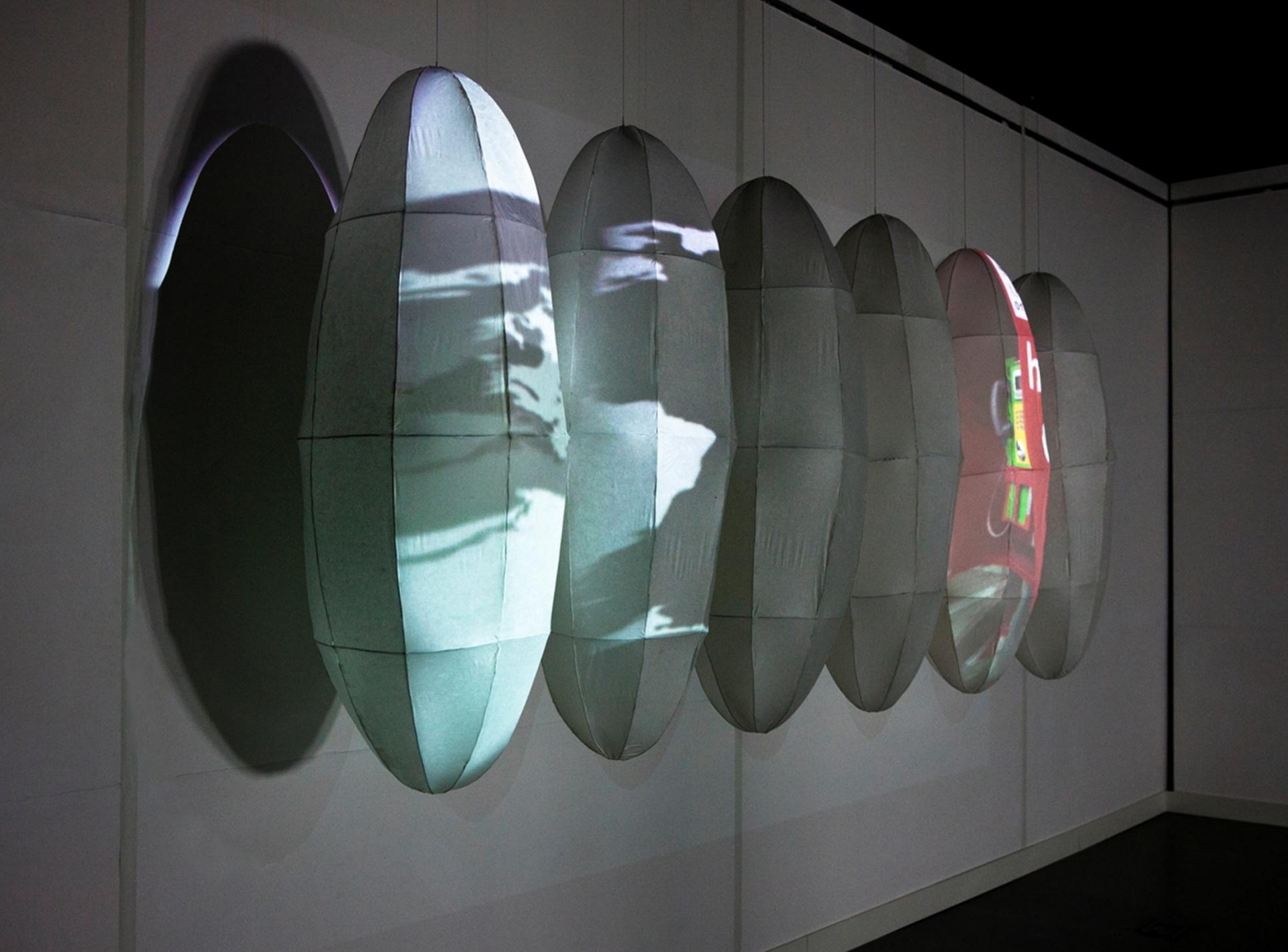


Remapping VI
/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 360x160cm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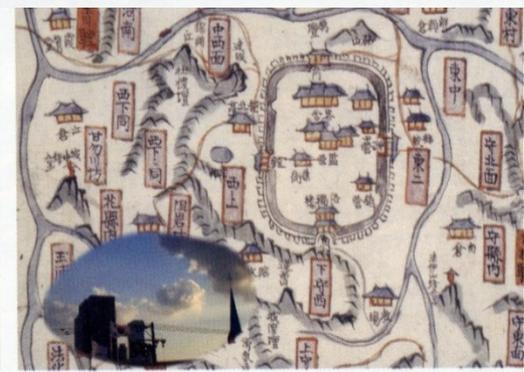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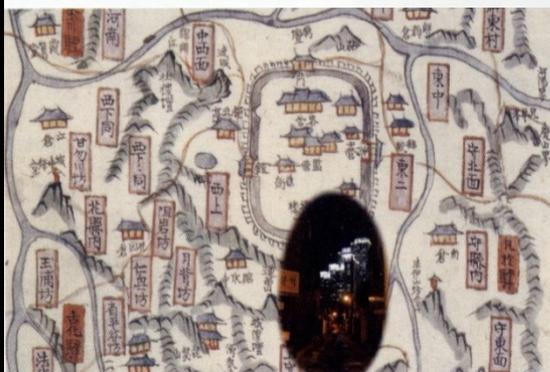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RmRQdGzQ7h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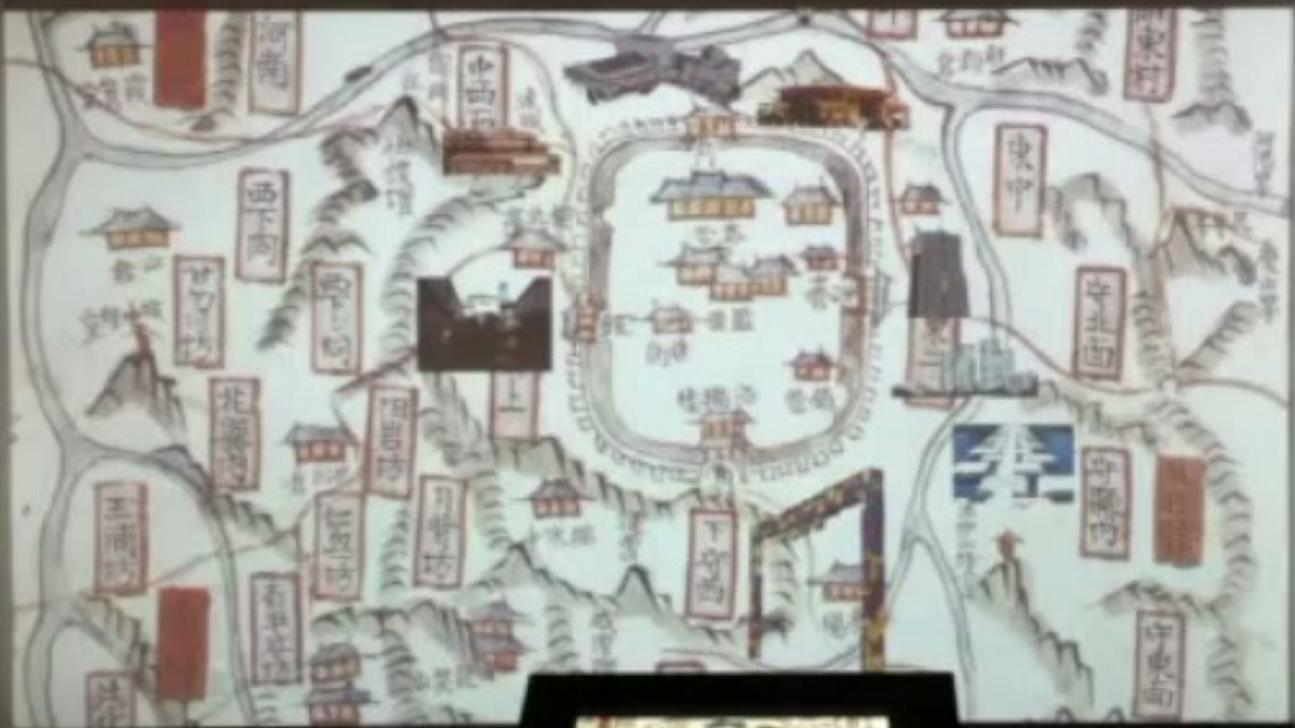






Remapping Daegu /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 variable size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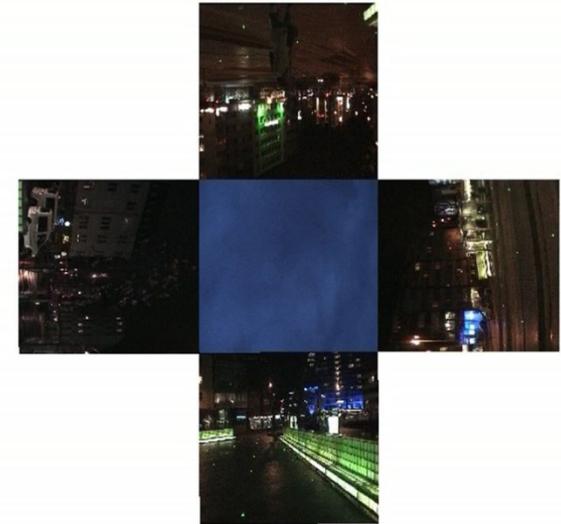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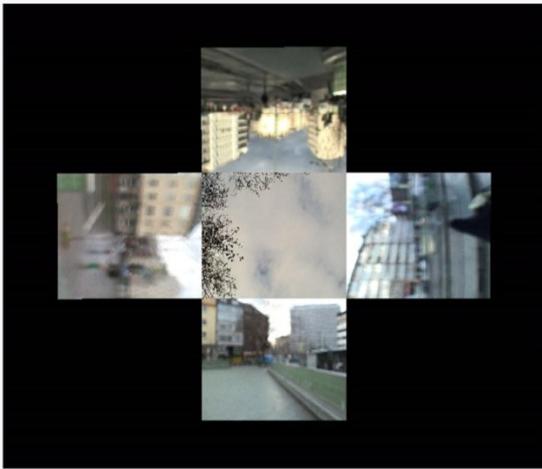






강현지(시카고)+김미련(대구)+정효진(뒤셀도르프), 강현지작가의 제안한 프로젝트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지구 고급화(Gentrification)에 대해 공동체 멤버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다루는 공동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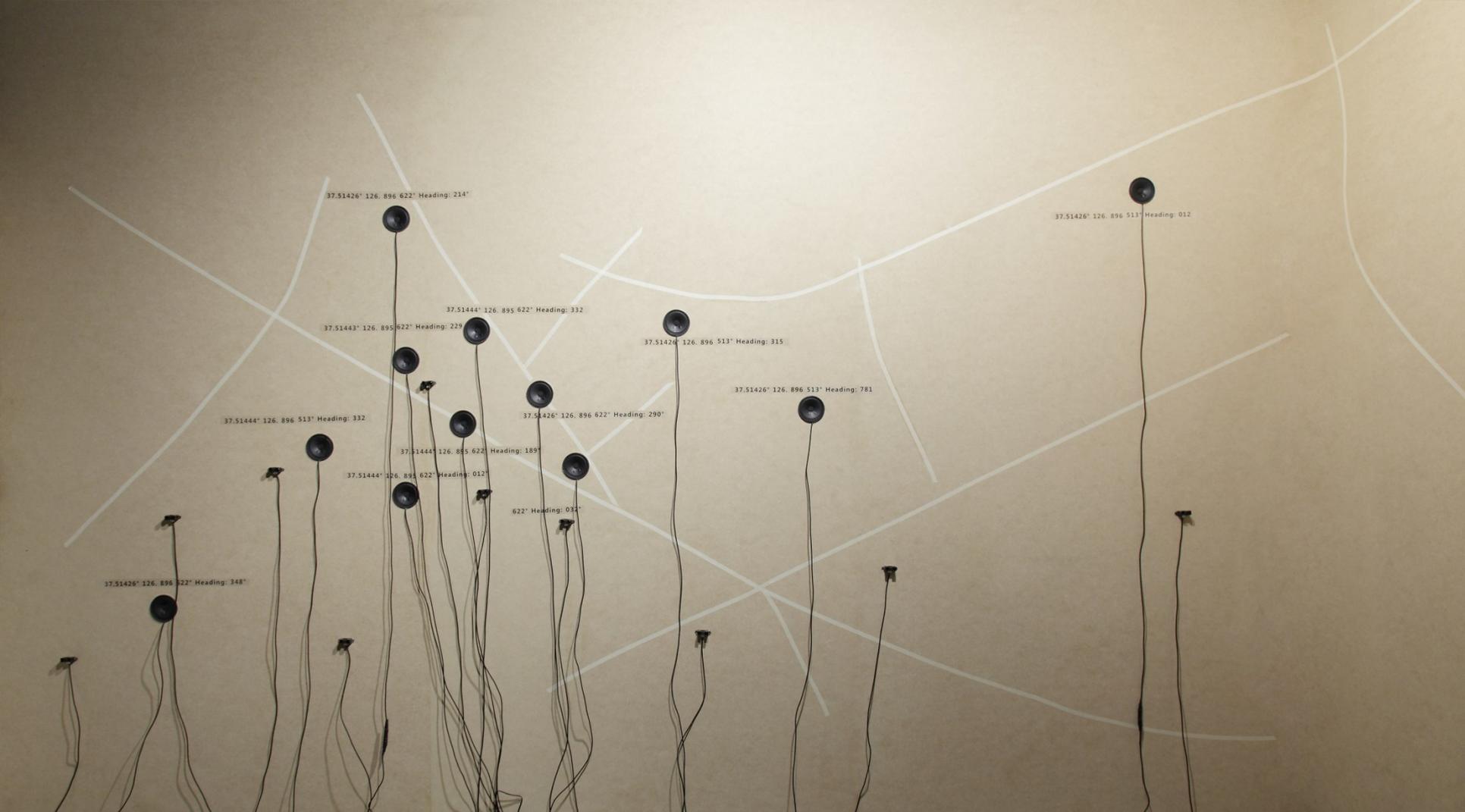
Under the Costruction / interactive sound-Visualization + 다채널 비디오 / 2013



평면의 캔버스위에 보링거플라츠에서 관찰되어지는 여행자들의 움직임이 투사된다.
 그와 동시에 큐브모양을 띤 글라스하우스의 각각의 면들은 평면 위에 별 모양으로 펼쳐지고 그 중심은 하늘이다.
 캔버스 위에 투사되는 영상을 통해 서로 다른 각 면의 대치 점이 부각된다.
 이 장소와 연관된 사람들은 아주 강한 이 주민의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영향은 위의 퍼포먼스를 통해 가시화된다.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과 더불어 세계각지의 뉴스영상이 동시에 투사된다.
 이 싱글채널 비디오 (**Videoloop**)에서 시간(낮/밤)과 사람들(**Worringer Platz**)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터넷설한 뉴스속의
 사람들)이 교체되어 드러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장소와 행위자의 비가시적인 면과 가시적인 면의 동시성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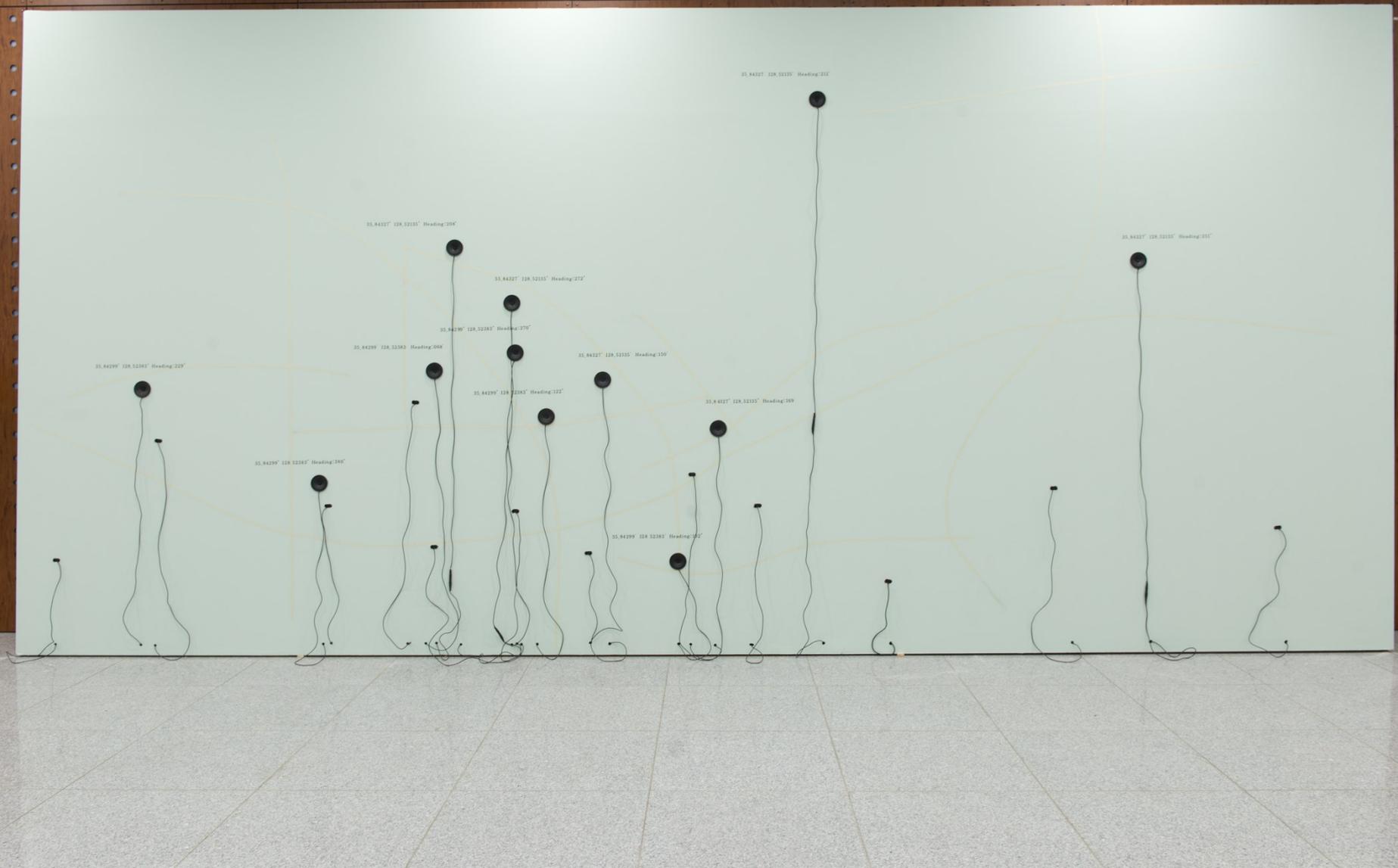


포항 영일만의 15세기 고지도에서 보여지는 공간해석에 대한 지도 그리기 방식과 지금의 변화된 포항의 지형, 삶의 유형, 포항 시민의 정서, 지도 그리기 방식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나타내어, 관객의 흥미가 가는 장소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의 일상과 장소에서 나오는 소리를 채집하고 인터랙티브한 공간작업으로 구성하여 타율적인 개입에 대한 패러독스를 관람객이 느끼도록 설치하였다. 소음과 소리, 점과 선, 운동과 리듬은 장소에 대한 요소들 속에 새로운 융합을 이뤄간다.

Noise mapping in Mullae / sound interactive Installation / 550x240cm / 2014



Noise mapping in Daegu / sound interactive Installation / 650x300cm / 2014



Noise mapping in Daegu / sound interactive Performance / Park JungHee / 2014



포항 영일만 고지도를 현재적으로 재해석,
제철산업으로 근대를 일구어낸 질료라고
할수 있는 철 가공 잔여물인 기루꾸, 선반
칩을 이용해 설치

도기야의 아틀라스
쇠밥, 선반 칩, 라이팅 자동 점등소등
320 x 160x 2.6cm
2015



재개발과 도시문화재생사업이 활발한, 도시민과 도심야생동물이 공생하는 대구 작업장주변 동인동의 야생지각도

생생지리生生之理 동인圖
3채널 비디오설치
가변크기
2015



생생지리生生之理 동인圖 / 3채널 비디오설치/ 가변크기 / 2015

<https://youtu.be/H7mxbUDI47o>



생생지리生生之理 동인圖 II / 디지털 포토 / 45 x 105cm x 3장 / 2015

The spatial Plants

■ Daegu Media Art ZKM 2013 -Better Than Universe / 예술감독 유준상(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독일에서 영상설치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과정을 이수한 김미련의 작업은 3D 맵핑으로 알려져 있는 영상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그의 작업은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영상처리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매우 확장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

김미련은 〈Spatial Plants〉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기억과 흔적을 현재 시간과 매개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시간에서 발견한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을 영상언어로 구체화함으로써 과거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공간에서 다시 환기하고 재정의 하는 것이다.

〈Spatial Plants〉는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채취한 식물을 시간의 순으로 배열하고 기록화 한 사진 시리즈로 사진제작 방법상 ‘Scanner Photography’라고 분류된다. 스캐닝을 거친 일련의 다양한 식물체는 그것들이 사진결과물로 출력되기까지 가상의 이미지로 변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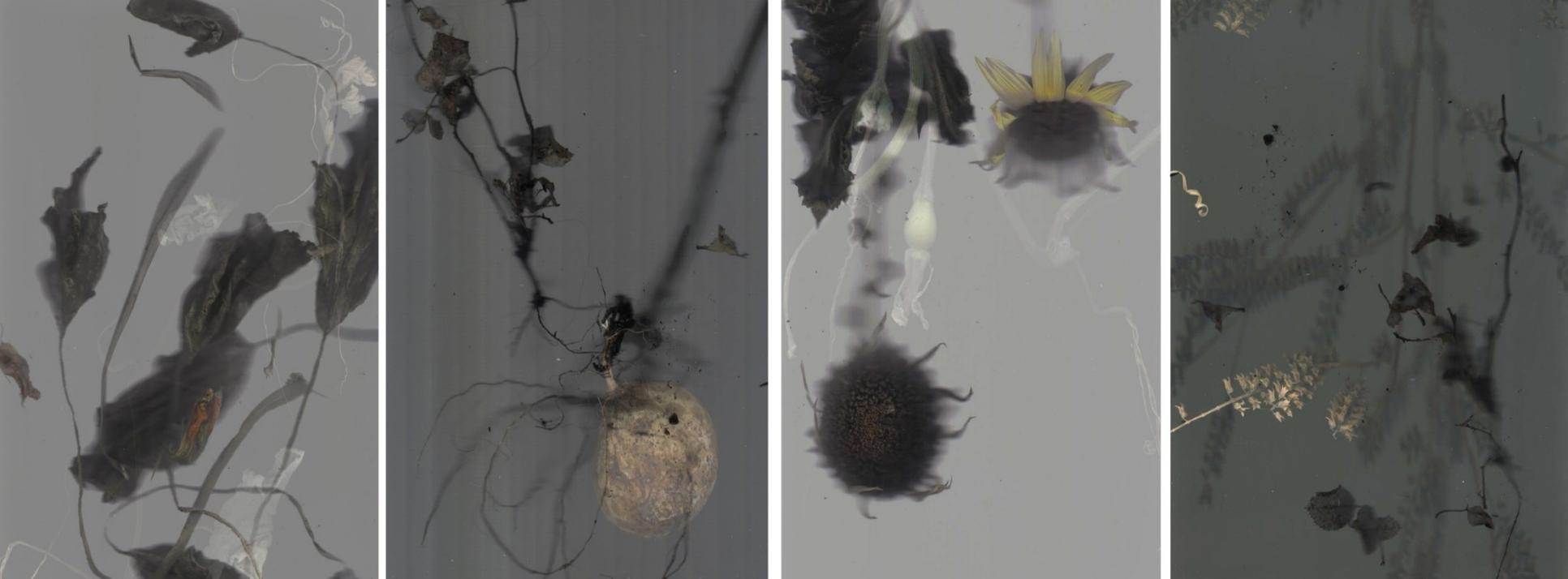
반면, 스캔 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시금 3D 영상작업으로 재해석한 〈Spatial Plants II〉는 가상과 실재의 문제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화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식물 이미지는 가상의 영역을 부유하듯 떠돌고 있다. 이때 관객은 스크린 화면에 떠도는 가상의 식물이미지를 지각하면서 동시에 전시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실제 화분들을 지각함으로써 현실의 범주를 넘나들게 된다. 게다가 〈Spatial Plants II〉 영상설치에서는 실제 화분들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영상에 투사되어 가상적 이미지와 조우하게 되면서 우리의 지각 안에서 또 다른 현실의 층위가 생성된다.

이 모든 가상과 실재의 혼재는 중국에는 ‘현실’ 그 자체를 가상적 경험의 일부로 지각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우리를 몰고가게 될지도 모른다.

실재와 가상의 경계에서 작업을 펼쳐나가는 김미련의 작업은 실재의 것들이 가상화하면서 파생시키는 ‘그 무엇’에 대한 포착을 추구하고 있다.



Gachangs Spring / Scanografie-Digital Print / 29.7x21cmx90 pieces / 2009



Pumpkin Flower / Scanografie-Digital Print / 150cmx105cmx3 pieces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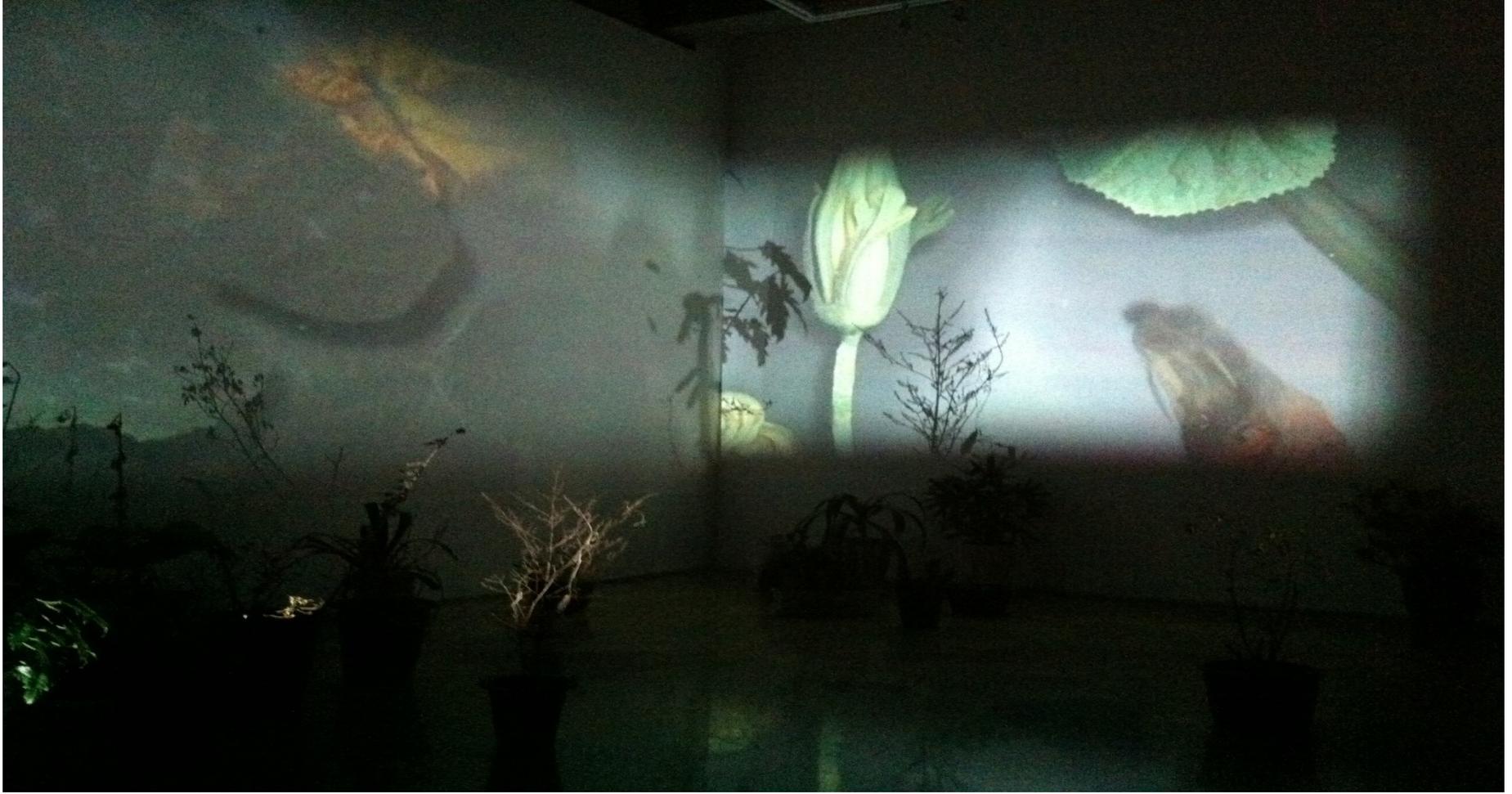


Pumpkin Flower 4,6,7 / Scanografie-Digital Print / 150cmx105cmx3 pieces / 2010



The spatial Plants II / Video installation / 5m21s / 2012

<https://www.youtube.com/watch?v=xNN-J9vBzDw>



The spatial Plants II / Detail



The spatial Plants'Co-Work' / Fashion Projection Mapping / 2014



'문래 스캐닝'설치장면 / 2D scangraphy / 270x270cm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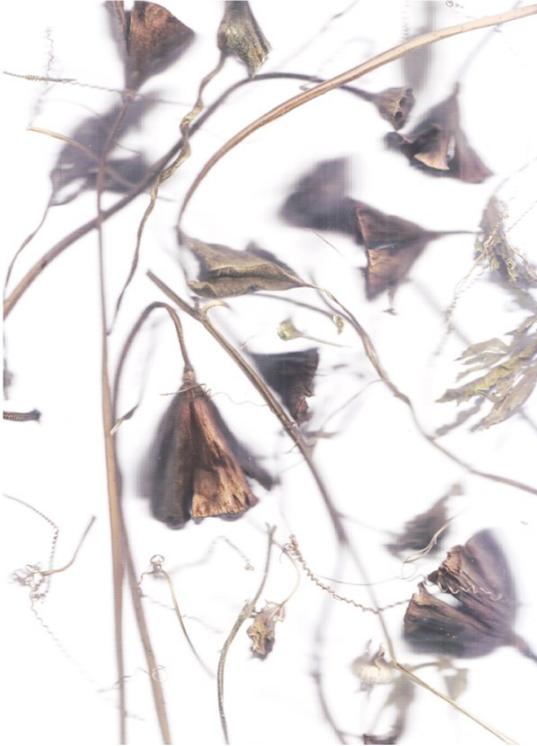
Pohang, Yeongilman2D scangraphy



Reed in Yeonilman I, II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Bamboo in Homiro I,II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Autumn in Dogiya I,II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Autumn in Dogiya III, IV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소벌야화_ Memory error / 60x40cmx2 / Scannography / Pigment print / 2016



소별야화_ Memory error / 60x40cmx2 / Scannography / Pigment print / 2016

Old Suitcase



somebody, 55x26x13cm, 1m27s,
1channel video installation on a Cleaner for blackbord eraser,2009

철판 지우개 덮이 안에 설치된 LCD를 통해 방송아나운서들의 멘트 중간의 호흡가다듬식 소리와 동작만을 편집한 영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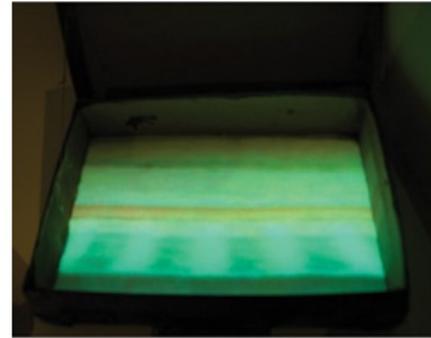
Weathercast, 30x23x21.5cm, 3m44s
sound installation on a suitcase,2008

가창주변의 바람소리, 대나무숲의 흔들림 소리와 함께 독일어 일기예보와 한국어 일기예보가 라디오아나운서의 음성으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시간흐름의 순서와 역순을 반복하면서 변주된다.



Rail, 40x26x6cm, 9m3s, 1channel video installation on a old suitcase,2008

here and there, 90x120x240cm,7m54s,2channel video installation,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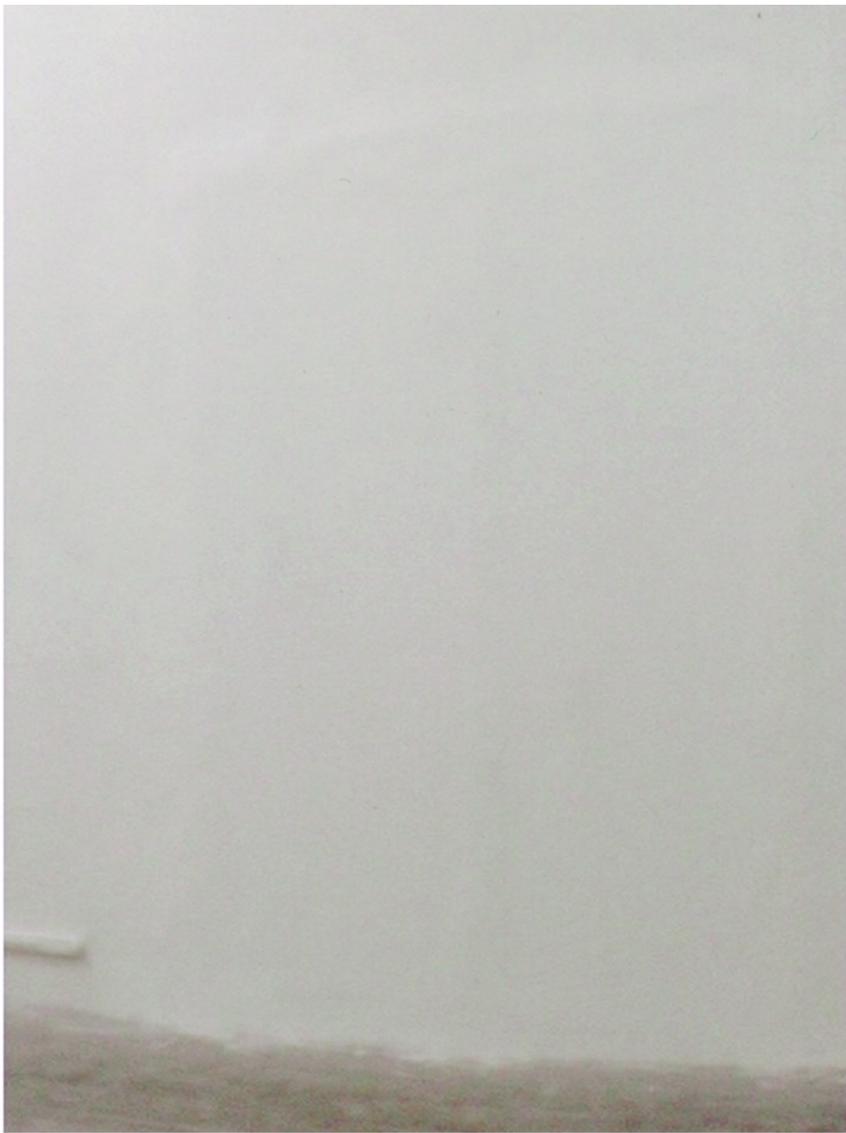
10년간의 한국과 유럽방문 동안 촬영한 풍경위주의 비디오일기를 편집하여 과거와 현재시간의 흐름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재생한다.

Before - After

십 수년간 여러 작가들의 작업장으로 쓰이는 동안, 전시와 작업이라는 용도의 반복과 변화에 의해 붙박이장 문은 수없이 닫히고 열리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작가들마다의 작품과 작업에 투영된 수 없는 반복과 변화, 그 동일성과 이질성을 개인작업으로 끌어들인다. 공간에서 일어난 우연한 과거의 사건 위에 작가의 현재적 노동을 가미하여-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우발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 시간과 공간, 겹침과 단절-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긴장을 불러내어 하나의 공간 속에 투영된 역사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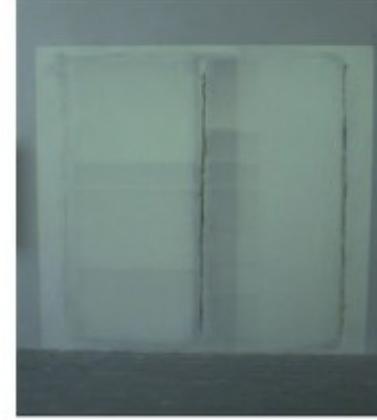
미술작품의 사회적 역할이 단순히 작가의 노동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 방향적인 생산품(Production)에 국한것이 아닌, 주어진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밝혀내는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작품 속에 최대한 시간, 공간, 이미지의 결합을 유도하여, 관객이 그것을 체험하고 관객 나름의 상상으로 더 확장된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체와 객체의 경계, 작품과 비 작품의 경계, 개인과 전체, 본질과 대상 등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이 실은 하나의 면 위에서 순환,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Before-after / Space Installation / 300x400cm / 2006



before-after-process



Wall closet II
Videoprojection on Wall
300x400c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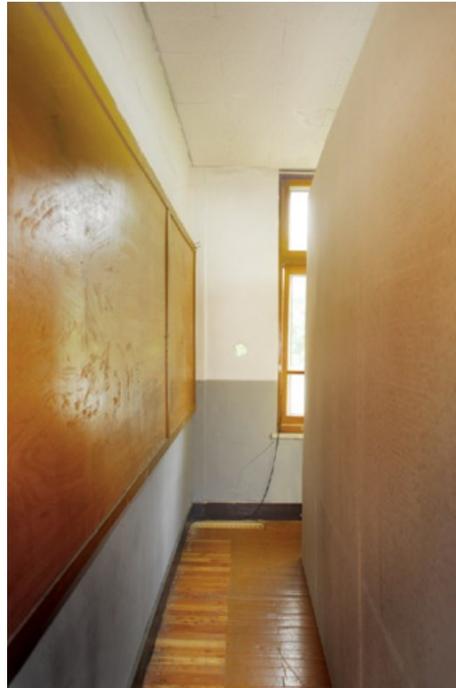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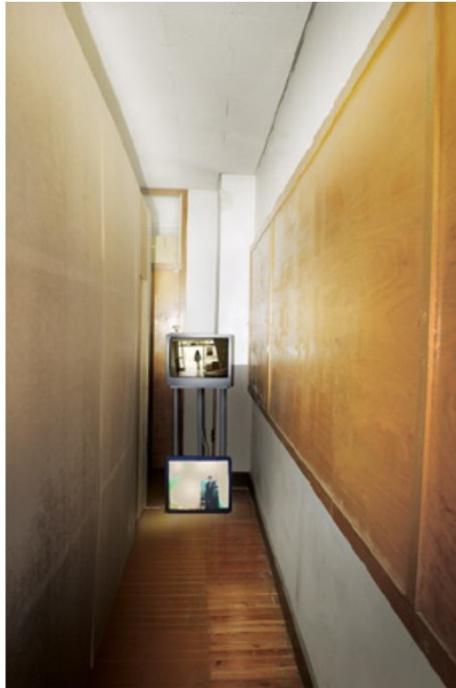


Wall closet
2channel video on 2PDP
143x92x7c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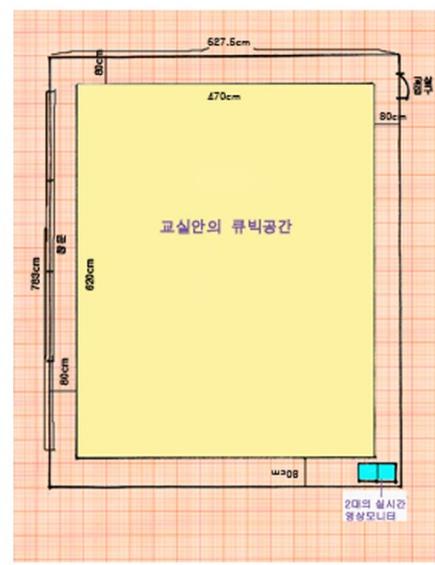
Atelier / Digital Print / 각각 90x63cm / 2008

Passage



공간은 설치된 큐빅공간에 의해 안과 밖으로 분리되고, 관객들은 자기가 서 있는 이 공간과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자신이 부재한 벽면 저 편의 장소의 현재를 바라보게 된다.

4 Passages, 470x620x244cm, cube in a space,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2009



달성습지 4계절 드로잉

더 이상 볼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아니 ‘이미 아직’ 상태의 달성습지 4계절을 드로잉으로 담아보았다.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버드나무 숲도, 흑두루미, 사람 키 높이로 자란 갈대와 물 억새 군락, 달성습지 갈대밭 길 위에 흔히 보이는 고라니 똥, 너구리의 발자국, 멸종위기종만 십여 종이 있는 생물다양성 면에서 최고의 습지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려본다.

대구 4차 순환선 성서-지천간 도로 사업은 분주히 포크레인과 중장비장비로 길을 내고 있는 가운데 세계습지목록에 오른 천혜의 자연 자원 달성습지를 훼손하고 있다.

강변 생태계를 살린다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과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담수를 일으키고 물고기 떼죽음과 버드나무 떼죽음 사태를 초래 함으로 강변생태계도 죽어가고 있다.

흑두루미, 백로, 왜가리, 맹꽁이 등의 야생동식물은 이제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는 달성습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길은 묘연한 것일까? 관계에 있어 예의란 걸 생각해 보는 것은 사치인가.



'이미 아직', II / 40 x 30cm x 2 / 연필, 목탄 드로잉 / 2015년



'이미 아직'Ⅲ, IV / 40 x 30cm x 2 / 연필, 목탄 드로잉 / 2015년

문래동 장소특정 작업

성북문화재단 , 미술학박사 성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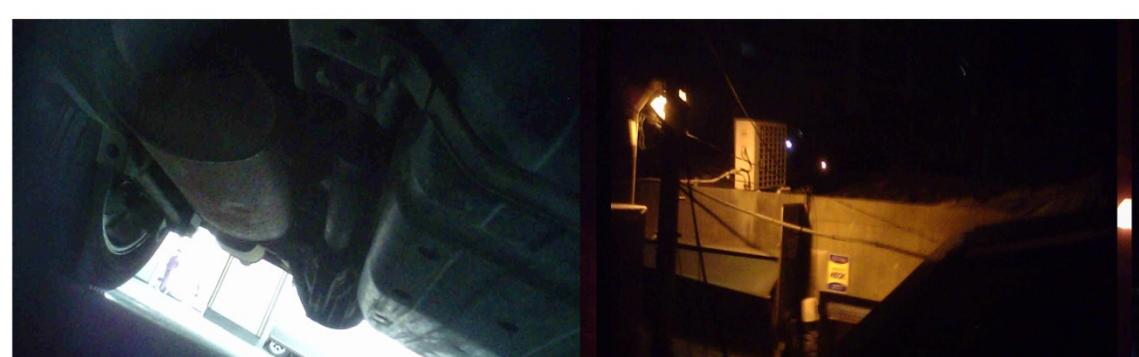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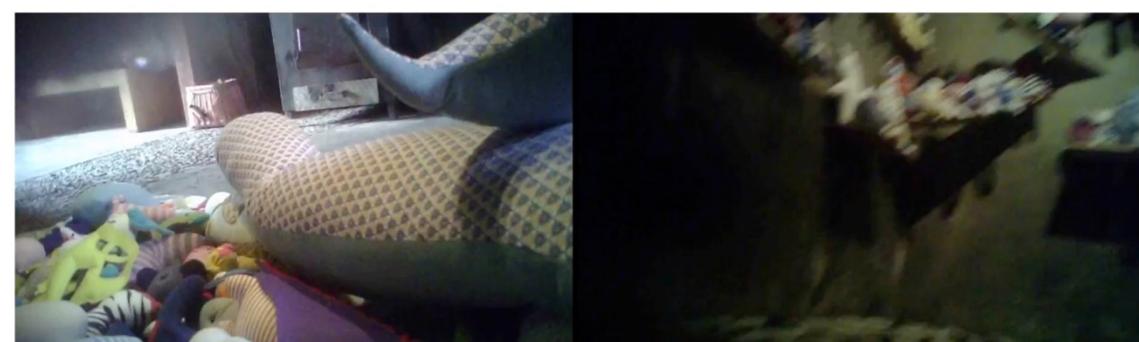
2014년 문래동에서 열린 전시《기억의 미래》에서 2D스캐닝 방식을 통해 문래동 공장지대의 먼지, 철가루, 고양이들의 털, 낡은 포스터, 녹슨 나사들 같은 것들은 사소한 것에서 장소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들로 중요한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 문래동 전시에서는 백색의 인물조각상이 철기둥들 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문래동의 역사와 한 공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6명의 사람의 실물을 3D 스캐닝하여 3D 프린팅하여 제작된 작업이다. 여기서 스캐닝기술은 평면에서 입체로 그 대상이 확장되었으며 "변화하는 것의 불변성"을 포착하는 것처럼 느끼게도 하였다. 또한, 채집, 기록의 가시적 방법을 통해서 작가는 가변성(기억, 대상, 사물)속에 변하지 않는 불변성(기억, 순간, 존재)을 포착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하고 변화하는 것을 통해 삶, 시간, 관계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디지털기술을 통한 작품구현의 방식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 작품의 의미와 해석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성의 구현, 재현의 역할,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



문래동 철공상가 소음과 관객의 소리에 따라 선풍기 회전영상과 사운드의 왜곡과 리듬이 변화
붉은 벽돌집의 기억재생 / 인터랙티브 오디오 비주얼 영상 / 가변크기 / 2014



문래동 철공상가 주물공장 20년의 변화과정을 공유한 상가주민의 인터뷰 기록 영상
붉은 벽돌집의 기억재생 / 3채널비디오_인터뷰 영상 / 가변크기 / 2014



길 고양이 2마리의 헬멧 샷으로 기록된
문래동 철재상가 골목의 낮과 밤
영상과 소리

이포와 광명의 문래슈팅-낮과 밤/
2채널비디오/
loop /
2014

3D Scanning 조각



문래동 철공사가 자영업자와 예술가의 구술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3D 프린트 조각
붉은 벽돌집의 모임 / 3D 프린트 조각 / 20 x 7.5 x 7cm x 6 / 2014



붉은 벽돌집의 모임 / 3D 프린트 조각 / 20 x 7.5 x 7cm x 6 / 2014



문래동 철공사가 자영업자와 예술가의 구술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3D 프린트 조각
붉은 벽돌집의 모임 / 3D 프린트 조각 / 20 x 7.5 x 7cm x 6 / 2014

사루비아의 피부

부산대학교 문화영상과 교수, 조선령

사루비아다방 벽을 데콜라주 *décollage*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지층을 드러내고 뜯어낸 벽의 흔적을 스캐닝해서 개념적 공간 설치를 시도하였다.

‘스캐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는 하나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의 순간 그 자체를 얇은 막처럼 떼온다. 이 작업에 별명을 붙인다면 아마도 ‘기억의 피부를 본뜨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본뜨기 작업은 원본과 사본이라는 두 항들 사이의 일치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다양하고 불규칙한 형상들이 스캔이라는 기계적 과정을 거쳐 기록될 때, 감성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사이에는 미묘한 충돌이 생긴다. 이러한 충돌은 경험과 기록 사이의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균열을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기록’의 장소는 이 ‘어디에도 없는’ 공간 안이다. 이 공간은 단지 개인의 장소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다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샤루비아다방 벽을 데콜라주 décollage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지층을 드러내고 뜯어낸 벽의 흔적을 스캐닝해서 개념적 공간 설치를 시도하였다

샤루비아의 피부II_공간설치_ 89x160X4cm_2016



사루비아다방 벽을 데콜라주 décollage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지층을 드러내고 뜯어낸 벽의 흔적을 스캐닝해서 개념적 공간 설치를 시도하였다

사루비아의 피부 _ 공간설치 _ 21x29.7cmX2 _ 2016



사루비아의 피부조각V _ Scanography 피그먼트 인화 _ 21x29.7cmX6 _ 2016



사루비아의 피부조각V _ Scanography 피그먼트 인화 _ 공간설치_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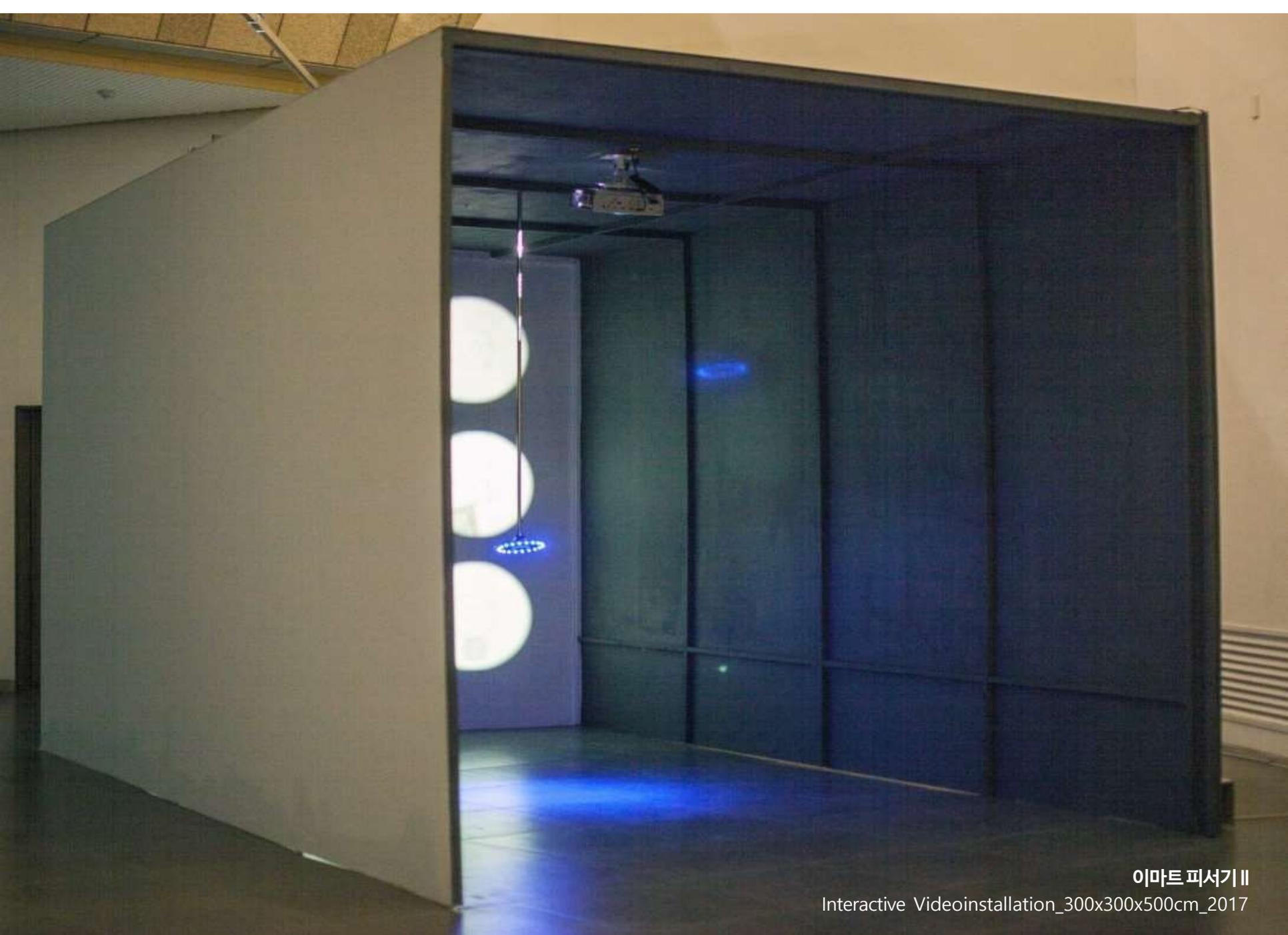
사루비아의 피부, II_공간 설치, 스케노그래피 피그먼트인화_가변크기_2016



'Monumental XXX Large'_ 동상위에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 on the statue _ 150x80cm_ 2017 'Monumental XXX Large'라는 제목의이 프로젝트는 내가 사는 대구경북지역의 디스토피아적 현재성, 트라우마를 담고자 한 것이다. 'XXX Large'는 미국의 영아의류사이즈의 오버사이즈를 나타낸 치수로서 'XXL'성인사이즈와 아이러니하게 중첩되는 은유를 암시한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지역은 경상북도이다. 19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난 나는 국민학교시절, 등교하자마자 매일 아침에 국민교육현장과 애국가4절을 외워서 받아쓰기를 제출해야 했다. 강제된 학습효과 덕택으로 나는 어릴 적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날까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고유명사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 경북지역에 흩어져 분포되어있는 박정희 동상들, 구미 초 등 학교 (1991), 포항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2009),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광장(2011.8),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 인근(2011.11)등, '박정희' 관련 사업에 5년간 세금 1270억원을 쏟아 부은 곳이 경북권이며 박정희 이상화사업의 중심지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라는 날벼락이 떨어진지 2017.10.11.현재 456일째이다.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 이후 꿈쩍없이 강행되고 있는 지역과 한반도, 나아가 세계 국제정치의 이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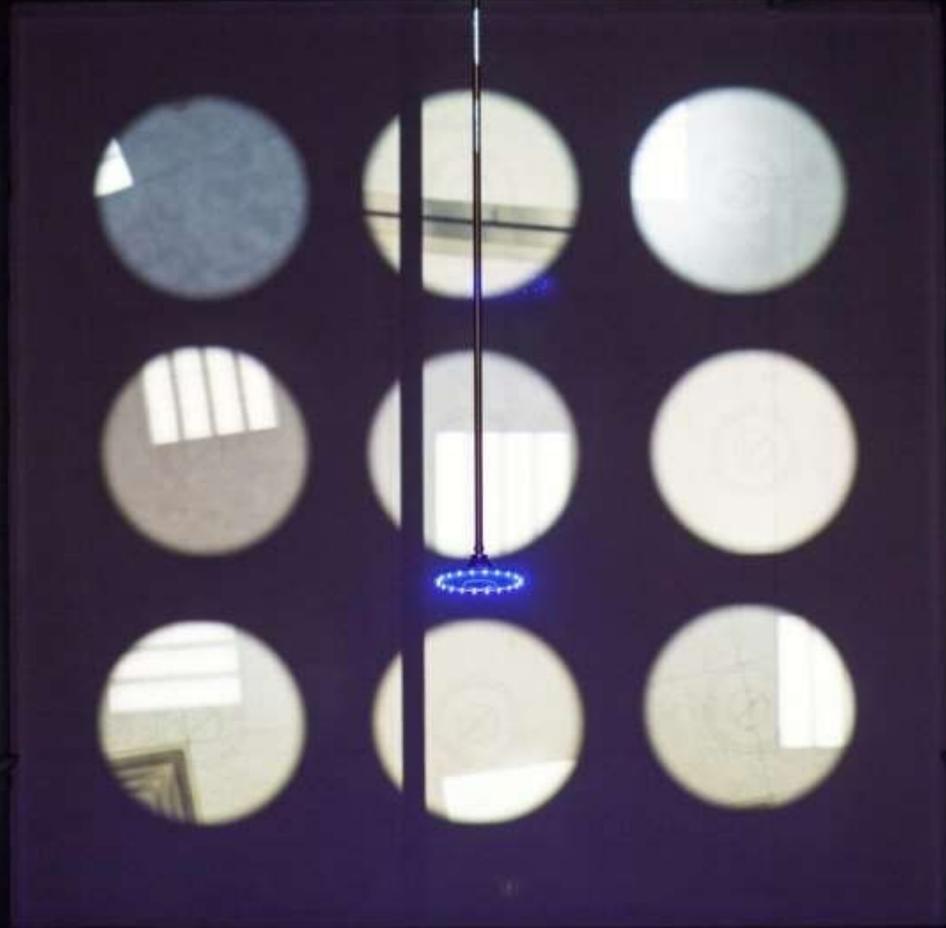
'Monumental XXX Large'_Projection Mapping on the statue _ 150x80cm_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Kp3sa1HmThA&feature=youtu.be>



이마트 피서기 II

Interactive Videoinstallation_300x300x500cm_2017

뉴타운, 신도시가 늘 때마다 똑 같은 풍경이 도로를 따라 지루하게 증식하는데, 곳곳마다 생활권 한 단위가 생성되고 그 구성요소 중 하나가 이마트이다. 이마트에서 운영되는 실내놀이터는 어린이의 피서지로서 가능하다. 이마트의 천장에 설치된 조명, 환기, 방송, 방범장치는 온도, 습도, 조도를 소비자의 쾌적한 몸의 리듬에 최적화하고 재벌기업의 유통시스템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무의식에 개입한다. 이마트에서 소비자의 피부자아는 나날히 이마트 사운드 스케이프(음악, 방송)에 최적화되어가고 고유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빼앗기고 자본의 리듬과 속도에 길들여져 간다. 천정에 숨겨진 공간이나 표면 아래 숨기고 있는 맥락들을 밝혀내서 피상성의 인터페이스 뒷면을 탐구하고 미디어의 본질적 실체를 발굴하기 위해 천착하고자 한다. 이 비가시적인 것들을 다시 감각 가능한 실체로 드러내 보여줌에 있어 관람객의 신체와 움직임은 일상성속에 가려진 시스템 뒤의 베일을 벗기는 매개체가 되고, 이러한 신체적 개입에 의해 작품은 완성된다. *스피커사위기를 통해 관람객들이 원하는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피서기 II

<https://www.youtube.com/watch?v=mxq0A7H5W3A>



U-TOPIA_Here you are LED Panel _ 600x105cm _ clip-loop _ 2018

<https://www.facebook.com/miryeon.kim.5/videos/10205347377559410/?t=0>



‘시간의 피부’ 연작

mixed Media _ variable Size _ 2018~2021

Random Grid Random City

문화비축기지 큐레이터 최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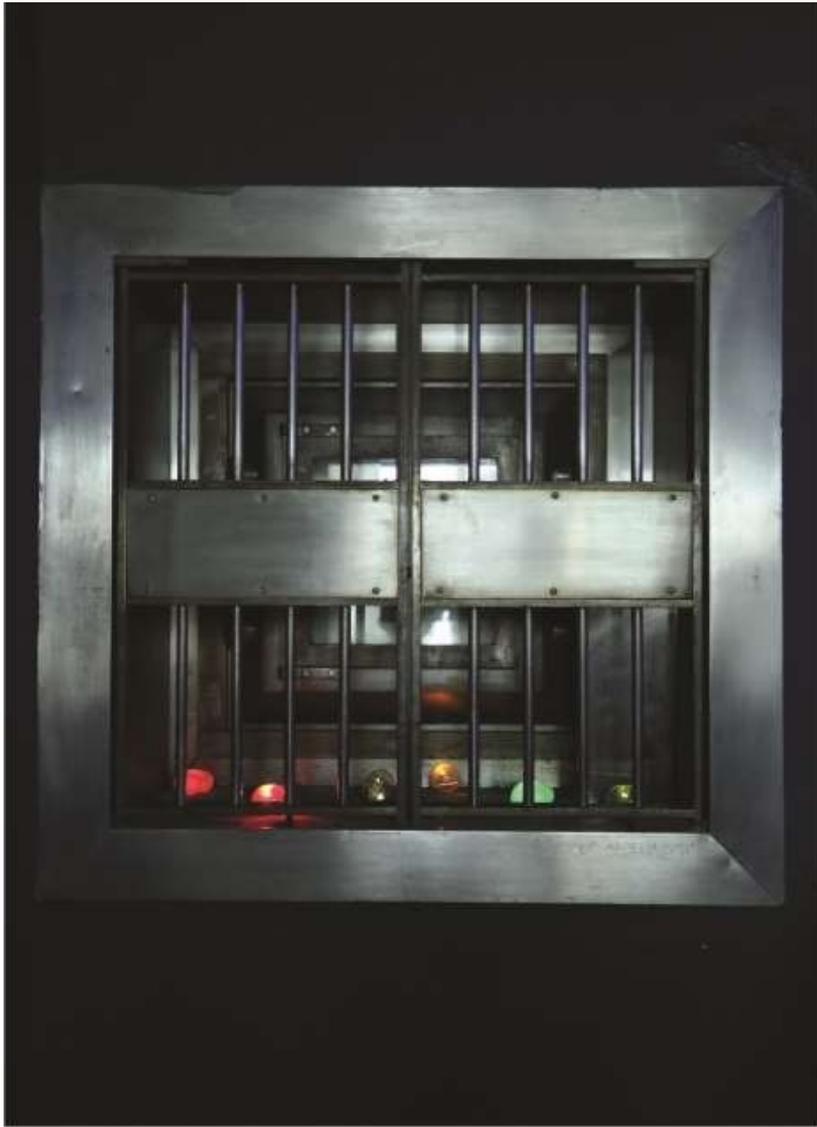
일정한 사건들의 연쇄적 연결이 아니라,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 작가의 작업들은 마치 하나의 변증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실연하는 ‘몸’과 관찰하는 ‘기록’과 기억을 발굴하는 ‘채집’이라는 실천적 행위가 역사와 장소에 내재한 모순에 다가선다, 그 행위는 과거와 현재를 직조한 망 속에서 비판적 관점을 생성하는 동시에 통찰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제에서 출발한 전시, 〈랜덤 그리드, 랜덤 대구〉에 쓰여진 서사들, 그 너머의 서사들은 무엇을 향하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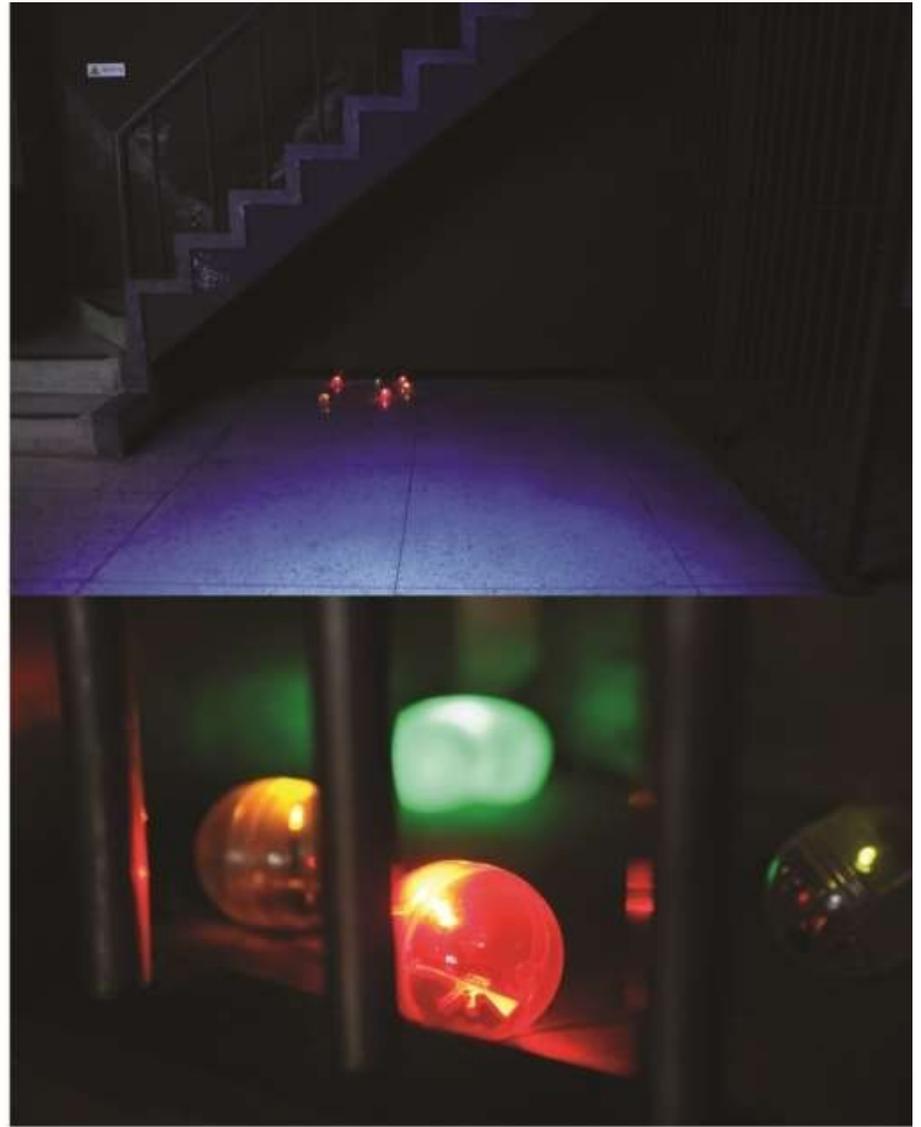
Random City_ 그리기와 지우기

Light foto-pannel 42x59.4cmx3, Viedo on Walker _ 2018





사물 금고 II



Mixed Media _ Variable size _ 2018



'사물 금고1' 단채널영상 반복재생 2019, 'The safe of things I' Single channel video loop 2019 - YouTube

사물 금고 I

Single channel video _ 1m53s _ Variable size _ 2019

대구 메가폰 슈프레히콜 Daegu Megafon Sprechchor

이상춘은 1910년 대구에서 태어나 1937년에 요절한 천재예술가로서 정치적 아방가르디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다다이스트, 러시아 구성주의, 카프미술운동, 카프(KAPF)예술운동, 연극운동, 행동주의예술운동을 하였다.

이상춘이 1932년 신고송과 함께 만들었던 극단 <메가폰>의 슈프레히콜(Sprechchor)을 연구하고 복원한다. 이상춘과 신고송은 1932년 7월 <연극운동>을 발간하며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곧 일본에서도 실연된 집회, 시위 형식의 전위연극 슈프레히콜 (Sprechchor:독일어 'Sprechen / 말하다'와 'Chor / 합창'의 합성어)을 특징으로 다루며, 시 낭송과 코러스가 어우러진 이 새로운 거리공연을 '선동, 선전' 프로연극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대구메가폰 슈프레히콜'은 신고송작의 <철쇄는 끊어졌다>를 복원하는 한편 또한 창작물 <지금, 여기 타오르는 불>을 초연한다.

Ree Sang-choon was born in Daegu in 1910 and died in 1937 as a genius artist. He was a Dadaist, Russian constructivist and worked on the the KAPF Arts Movement, the Theatrical Movement and the Activist Arts Movement.

Study and restore the Sprechchor of the drama megaphone produced in 1964 by Ree Sangchoon with Shin Gosong. Ree Sangchoon and Shin Gosong published The Theater Movement in July 1932. A compound word of German 'Sprechen' and 'Chor', which started in Germany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soon performed in Japan. And through poetry and chorus he tried to develop this new street performance into a 'proletarian theater movement'.

Daegu Megaphone Sprechchor restores Shin Gosong's <Iron Chain is Broken> and premieres <Now Here, Blazing Fire>.



대구 메가폰 스피커하울 팀
서문숙 프로젝트, 이현순 연구원을
박정희 연두가 강령기 작곡가,
김이현(현상실제, 공민제(단) 도도,
김종미, 윤정민, 박 대아, 박정희,
박순재, 손영숙, 윤혜진, 박희서(외 2인)

Daegu Megafon Sprechchor 3 Channel Video , Sound installation _ Variable size _ 2019

<https://www.localpost10.com/blank-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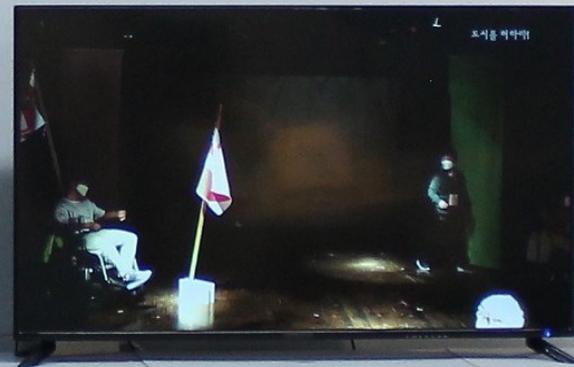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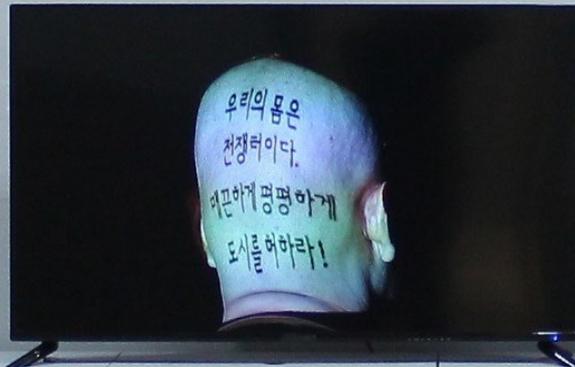
가장 보통의 날들 most ordinary days



'가장 보통의 날들', 6분16초, 3채널 영상,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FzZPJ7OkvCA>

안동 내가 태어난 의성김씨 내앞마을은 '마을앞에 개울이 흐른다'는 의미를 가진 곳으로 퇴계의 수제자였던 김성일의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다. 제국주의의 침입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학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 '혁신유림'의 본고장이자 전통사회 안동에 혁명을 몰고 온 '혁명발상지'이다. 1951년 월북(북행)하신 할아버지형제에 대한 아버지의 인터뷰 기록을 정리하면서 사적인 가족의 사연속에 한국인이면 누구나 어떻게든 걸쳐져 있을 역사와 운명을 가능할 수 있었다.

도시를 허하라 Allow the city



위: 다른 몸, 다른 언어:도시를 허하라(수화)_2021_사진폴라쥬_21cmx29.7cmx13개
아래:김미련(김정희,김유석)_〈도시를 허하라〉_2021_2채널영상_52.30cmx92.98cm모니터2대

<https://www.youtube.com/watch?v=sRBpZlk1eyE>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이들이 만나 서로의 '몸말'과 '몸짓', '몸그림'을 '빛(영상)'으로 엮는다. 몸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상상하는 도시는 그들의 '몸'이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화폭'이 되어 펼쳐진다. 장애인에게 일상성과 접근성이 허락되지 않는 도시의 문턱 높은 건물과 도시가 가지는 폐쇄성과 차별성은 다양한 미디어 기법으로 '몸'에 다시 입혀진다. 전용되고 전용된 이미지와 텍스트, 형상을 통해 '도시'는 그들의 '몸'에서 '재탈환'된다.

KIM MIRYEON

1969 안동생

Education

2013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수로

2008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술대 학사, 석사과정졸업, A.R.Penck 마이스터슐러 사사

1992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 졸업

Selected Solo Exhibition

2019 'SPOOKY MENTAL', Gabi Rottes와 2인전, 갤러리 구빌리아, 에센, 독일

2019 'Return', 라움뮌러아울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2018 '랜덤 그리드, 랜덤 대구 Random Grid, Random Daegu', 향촌문화관 기획, 타임프레이즘, 대구

2016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기획개인전 'SO_S프로그렘', 서울

'메모리 에러_N35.5539.E128.41378', 경남메세나지원작가전, DM갤러리, 창원

2015 '빛과 철, 기억의 미래' 11회 일월문화제 상경기획전시, 포항 문화예술회관 2전시실, 포항

2014 'moving scape' 특별기획전, 옷는얼굴아트센터, 달서문화재단, 대구

'기억의 미래 Mullae Scanning Noise Mapping', 대안공간 이포 기획전, 서울

2013 'The spatial Plants', 스페이스 두루, 릴레이 기획전, 서울

2012 '빛 2012'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1 'The spatial Plants', 주)독일한국문화원 코리아갤러리-기획공모전, 베를린, 독일

2010 'Monumental Aircraft in Glassbox' 유리상자-기획공모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Remapping V_스캐닝 포토', 렉서스 갤러리 기획초대전, 대구

'2009 올해의 청년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8 'Farbe, Licht, Raum', Günter Dohr교수와 2인전, St. Marien, 라데폼발트, 독일

'before-after'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공모전, 서울

2007 'moving Image', 아뉴어 갤러리초대전, 보코, 독일

'Remapping Worringerplatz', 글라스하우스 기획공모, 뒤셀도르프, 독일

2006 쿤스트투름갤러리 기획전, 라팅엔, 독일

'Remapping2', 포툼 바셔투름 기획전, 메어부쉬, 독일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2 'GOOD NEWS' 1.19-2.19 Lachenmann Art Gallery, 콘스탄츠, 독일

2022 'Hidden Messages' 2.11-2.26, Galeria Cenzontle, 멕시코시티, 멕시코

2022 '잘:will live well' 프로젝트 스페이스 바인딩, 창원

2021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구', 이상춘현대미술학교(RICA)기획, 범어아트스트리트 오픈갤러리, 대구

2021 '양가성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Die Ambivalenz bekommt jetzt eine neue Richtung'

10.29-12.3, Gallery Lachenmann Art, 프랑크푸르트, 독일

2021 '월간 인미공' 8월호/점명하는 집, 인사미술공간, 서울

2021 '2021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 COVID 특별전', 대구 로컬포스트&실현극장 카바리움, 강원도 인제 서화리

마을극장 DMZ, 제주 달란미술사건관, 제주-한림 복합문화공간 책 한모금, 전북 진안 운산습지공원

2021 '가장 보통의 날들', 프로젝트 그룹 '갑자기', 갤러리 문 101, 대구

2021 'HIDDEN Messages', AllArtNOW, 스톡홀름, 스웨덴

2020-21 '예술밥' 전환의 시대:예술노동, 밥에 관한 새로운 상상展,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20 '예술 人 희망 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동인아파트 272의 플라쥬', 대구

2020 '이야기-가치 있다' 대학문화예술커뮤니티, 로컬포스트(기획, 디자인, 아카이브),

경북대 조소동 및 대학 주변 상가내 전시 & 온라인 전시

2020 '연극으로 쉽다' 1회 총동연극전_나의 살던 고향은-메가폰 슈퍼레콜, 무대영상, 한울림 소극장, 대구

2020 '흔들리며 피는 꽃 19', 꿈꾸는 씨어터, 대구

2020 '시월 바람 바람 바람' 대구 10월 항쟁_지역x예술=화해의 난장, 소극장 함세상, 대구

2020 '아름다운 사람들' 대구전대일기념관 건립 기부 전시회 II,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대구

2020 한-독 국제교류현대미술전, 석암미술관, 대구

2020 '새로운 연대 New Communion' 릴레이 드로잉, 대구미술관

2020 <https://lockedroomsessions.com/>, 온라인전시

2020 '518, 40세 청년 40인이 품은 시간', 소극장 함세상, 대구

2020 '5.18 국제표정전', 518민주광장, 518개 표정 퍼레이드-망원동, 금남로, 용인 근현대사미술관

2022 'GOOD NEWS' 1.19-2.19 Lachenmann Art Gallery, 콘스탄츠, 독일

2022 'Hidden Messages' 2.11-2.26, Galeria Cenzontle, 멕시코시티, 멕시코

2022 '잘:will live well' 프로젝트 스페이스 바인딩, 창원

2021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구', 이상춘현대미술학교(RICA)기획, 범어아트스트리트 오픈갤러리, 대구

2021 '양가성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Die Ambivalenz bekommt jetzt eine neue

Richtung' 10.29-12.3, Gallery Lachenmann Art, 프랑크푸르트, 독일

2021 '월간 인미공' 8월호/점명하는 집, 인사미술공간, 서울

2021 '2021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 COVID 특별전', 대구 로컬포스트&실현극장 카바리움, 강원도

인제 서화리 마을극장DMZ, 제주 달란미술사건관, 제주-한림 복합문화공간 책 한모금,

전북 진안 운산습지공원

2021 '가장 보통의 날들', 프로젝트 그룹 '갑자기', 갤러리 문 101, 대구

2021 'HIDDEN Messages', AllArtNOW, 스톡홀름, 스웨덴

2020-21 '예술밥' 전환의 시대:예술노동, 밥에 관한 새로운 상상展,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20 '예술 人 희망 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동인아파트 272의 플라쥬', 대구

2020 '이야기-가치 있다' 대학문화예술커뮤니티, 로컬포스트(기획, 디자인, 아카이브),

경북대 조소동 및 대학 주변 상가내 전시 & 온라인 전시

2020 '연극으로 쉽다' 1회 총동연극전_나의 살던 고향은-메가폰 슈퍼레콜, 무대영상, 한울림 소극장, 대구

2020 '흔들리며 피는 꽃 19', 꿈꾸는 씨어터, 대구

2020 '시월 바람 바람 바람' 대구 10월 항쟁_지역x예술=화해의 난장, 소극장 함세상, 대구

2020 '아름다운 사람들' 대구전대일기념관 건립 기부 전시회 II,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대구

2020 한-독 국제교류현대미술전, 석암미술관, 대구

2020 '새로운 연대 New Communion' 릴레이 드로잉, 대구미술관

2020 <https://lockedroomsessions.com/>, 온라인전시

2020 '518, 40세 청년 40인이 품은 시간', 소극장 함세상, 대구

2020 '5.18 국제표정전', 518민주광장, 518개 표정 퍼레이드-망원동, 금남로, 용인 근현대사미술관

2019 '동인동인 東仁同人' - linked' 아카이브전시, 봉산문화회관 2전시실, 대구

2019 '동인동인 東仁同人' - linked' 프로젝트, 전시 공간 아파트커뮤니티행상, 동인아파트, 대구

2019 'Cube&Boxes return'展,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2019 'N개의 서울(이웃)' 예술인예술제 [문래창작촌 전시공간 네트워크展 Come on Common],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19 '과거로의 문화예술여행(시간 속을 거닐다)',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9 '20회 대구단편영화제 비온드러인',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

2019 'Die Grosse 2019',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2019 '대구 아트레전드 이상춘'展,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9 'Way to Simplicity 15: Yugen - feat. cubes & boxes', 미초코 성 미술관, 토덴도르프, 독일

2019 '도입시더 Do it Theater 2019'-디지털지식날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9 'Cube&Boxes'展,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2019 '또 다른 가능성 드로잉', 봉산문화회관 기획, 대구

2018 사루비아 20주년 기념전 <프리퀼 1999-2018>,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8 '일상생활비판'展,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18 '칼라콜 컨버전스'展, 경북대미술관, 대구

2018 '울산, 빛으로 그리다' 미디어파사드, 울산문화예술회관, 2018울산전국창작음악제, 울산

2018 'Media Glass Party', 오동동 문화광장, 창원

2018 '아티스트 북, I-Message'展,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대구

2018 'Beyond1',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대구

2018 'THAAD BREAKER' LOCAL POST & FRIENDS,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상상다방, 대구

2017 '미디어아트 상영회 29.97',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부산

2017 '디지털 에러', 예술상회 토마 기획 3인전, 대구

2017 'Deagu in Tact',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7 '우리 우상', 아트스페이스 탐다,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프로그램, 서울

2017 '미디어아트 상영회 29.97',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부산

2017 '재생, 새로운 탄생',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7 'DAC 소장작품전[지난 10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7 '도시의 산책자-공통도시, 기억, 생태',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6 '전국미술인 시국선언', 광주비엔날레전시공간 및 광장, 광주

2016 2016 칼라콜컨버전스,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6 'KUNSTPOSTSTELLE'예술우체국, Gallery GEDOK, 베를린, 독일

2016 '백화점 옆 식당원', H 갤러리, 대구, 한국

2015 '무심', 소암미술관, 서울

2015 '도시생태도막_무정구역', 대안공간 이포 개관기획전, 서울문화재단후원,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

- 2014 '저항예술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4 "Kunst Punkte 2014" 아틀리에 오픈 하우스, 뒤셀도르프, 독일
- 2014 '무용자각' '無用自覺' 거리의 춤꾼 유진 박정희 과 애니메이션 영상 협업 /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
- 2014 '50개 인터네셔널 공공미술 깃발프로젝트Flagge zeigen- '50 Kunenstler Fahnen', 라데폰발트(Radevonnwald) 도시 일대, 독일
- 2014 '옥상의 정치_지역연계프로젝트 "옥상민국"', 3.14-4.12, 문래동 일대 옥상/ 대안예술공간이포, 서울
- 2014 '메이드 인 코리아', 유진 유평픽 국제 아트 비디오 페스티벌, 노르망디, 프랑스
- 2014 "도입시더Do it Theater-산책퍼포먼스파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3 "전람회의 그림-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의 만남", 아양아트센터 블랙박스극장, 대구
- 2013 "Daegu Media Art ZKM 2013 미디어특별기획전-Better Than Universe",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3 "이합과 집산", 2013 남부국제현대미술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3 "Videoabend", 야뉴어 갤러리, 보쿰, 독일
- 2013 "Side-B, 2013 Glassbox Artist Project",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2 "삶+소통", 영상예술의 도시,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구
- 2012 "유목적 상상", 컨티넨탈 갤러리, CAI 02 갤러리, 사포르, 일본
- 2012 "Asia Contemporary Art Show", 홍콩2012, 홍콩
- 2012 "language is the House we live in"-Kunstfilmtag 2012, Malkasten, Dusseldorf, 독일
- 2012 "D Artist", 대구미술관, 대구
- 2011 "영상예술의 도시-대구",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구
- 2011 "Now in Daegu 2011-예술의 이익",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설전시장, 대구
- 2010 Fragmented Paysage, 2010 청년작가미술프로젝트,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0 "Artfilmday 2010", Malkasten, 뒤셀도르프, 독일
- 2010 'Evaporation' -NOCOMA그룹기획전시, 대안공간Vaseline, 뒤셀도르프, 독일
- 2010 CIGE 2010 베이징아트페어, 중국
- 2010 "Vision&Reflection", 2부:사물-일상에 말을 걸다, 경북대미술관, 대구
- 2009 "GoStop", 쿨투어반호프엘러, 뒤셀도르프, 독일
- 2009 포토코리아 2009-슈팅이미지, 코엑스 3층 장보고홀, 서울
- 2009 'Struggle-미술적 이상을 향한 6인의 고투', 시안미술관, 영천
- 2008 "ASTADKAD: ZKF: IKBB.34" - Kurzfilmabend, 블랙박스, 뒤셀도르프, 독일
- 2008 "Farbe Licht Raum", St. Marien, 라데폰발트, 독일
- 2007 Kunstfilmtag, Malkasten, 뒤셀도르프, 독일
- 2007 "Grosse Kunstausstellung Düsseldorf",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 2006 "sound of Mu", Kunstplattform, 오슬로, 노르웨이
- 2005 "The Cartesian Corridor", 쿤스트raum 인스부룩(Kunstraum Innsbruck), 인스부룩, 오스트리아
- 2005 "Palette Project", 미디어 퍼포먼스의 밤, 쿤스트raum 뒤셀도르프, 독일
- 2005 "Bi Bim Bab", 비빔밥, 쿨투어반호프 엘러, 뒤셀도르프, 독일
- 2005 "현대미술에서의 일루전", 우퍼 슬레지안 스테이트 뮤지엄, 라팅엔 휘젤, 뒤셀도르프, 독일
- 2004 Movienight "Urzula" 판코갤러리, 베를린, 독일
- 1994 민중미술 15년,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Organization and Project

2020 'Hi, A new Home', 수창청춘맨숀 전시 기획, 대구
2020 '이야기;가치 있다', 기획 및 증강현실마음지도 제작, 대학문화예술키움, 행복북구문화재단, 대구
2019 '동인동인 東仁同人' - linked' 프로젝트 기획, 전시 공연 아파트커뮤니티행사, 동인아파트, 대구
2019 '시적 정치미술 Political Art', 오오극장 삼삼다방, 대구
2019 '포스트 공동체 ing/1' 전시기획, 수창청춘맨숀, 대구
2018 '동인아파트_아이들의 기록'展 전시기획,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삼삼다방, 대구
2018 '울산, 빛으로 그리다' 미디어파사드 예술감독, 울산문화예술회관, 2018울산전국창작음악제, 울산
2018 공공미술 '계산오거리 조형물 영상', 대구시 주관, 대구
2018 'THAAD BREAKER'展,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삼삼다방, 전시&상영 기획, 대구
2018 '미련싸드 진폐양난'展,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전시기획, 성주
2017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북성로 매기갤러리, 전시기획, 대구
2017 In-Daegu 미디어파사드 "VISIBLE, INVISIBLE CITY" 예술감독,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7 '괜찮다! 정숙아', 2017 대구문화재단 우수공연지원작_극단 함께사는세상 연극 무대미술 영상, 대구
2017 '인생, 어떤 때라도 행복길을 가는 거야! 장경춘 개인전' 기획, 동계미술관,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
2017 '도시의 산책자-공동도시, 기억, 생태',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6 'City for Walk'기획, 2상공간 두들, 서울
2015 '2015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로컬포스트의 '도입시더 강정', '강을 위한 드로잉' 기획
2015 로컬포스트 '불순한 공연' 미디어퍼포먼스&카바레트 연출 기획, 2015가창창작캠프 오프닝공연, 대구
2014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패션프로젝션 맵핑,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2층, 대구
2013 '도입시더 Do it Theater' (로컬포스트)기획,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3.6-2013.11 "2013 Fashion+Art Collaboration" /디자이너 이유정과 콜라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원
2012.8-현재 "local post - global social network project group" 그룹창립과 활동 /
온라인, SNS를 활용한 facebook전시활동과 오프라인전시 / 독일 베를린과 뒤셀도르프에서 전시참여
2010 "Evaporation1.2" / "NOCOMA" 그룹창립, 독일 한국 국제교류온오프라인 전시 / 뒤셀도르프 바젤린, 대구 봉산문화회관
2009 '독일-한국간 국제교류레지던스,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Prize

2016 사루비아 다방 'SO.S' 프로그램 작가선정
2016 경남매세나 지원작가
2012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2009 오늘의 청년작가상 대구 문화예술회관
2008 서울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작가선정
2003 독일 레벨즈 변호사협회 작가후원상 1등상

Public Collection

대구미술관, 독일 한국문화원, 국립 과천현대미술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레스트 뮤지엄,
대구문화예술회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용인 근현대사미술관, 다수의 개인소장

Lecture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회화과 겸임교수, 대구한의대 디지털콘텐츠학과 초빙교수 역임
경북대, 대구예술대, 계명문화대, 덕성여대 외래강사